



◇소를 찾아 나서는 과정을 통해 깨달음의 과정을 10가지로 나타낸 심우도의 '황우'.



◇서울 탑골공원 안에 있는 원각사 비(보물 제3호)의 귀우. 147년.



◇호랑이는 불교가 재래신앙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호법신장의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1882년 고방사 신신장.



◇김교각스님 곁에서 스님을 도왔던 흰 사슴개像. 중국 청대 강화연간에 만들어져 구화산 화성사에 기증되었다.

불보살 곁에 등장... 중생교화 보조역

상징으로 보는 불교문화

포유류

‘옛날 한 사람이 들간에 나갔다가 미친 코끼리에 쫓겨 덩굴을 타고 우물 속으로 피신했다. 그러나 우물 바닥에는 독사가 입을 벌리고 있었다. 다시 오르려했지만 코끼리가 입구에 버티고 서 있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였다. 의지할 것이란 잡고 있는 덩굴 뿐이었다. 이때 어디선가 휘 휘 한 마리와 검은 귀 한 마리가 나타나 덩굴을 잡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 절대 절명의 순간, 그는 발잡에서 흐르는 물을 발견하고 꿀의 단맛에 취해 모든 위험을 잊고 도취되었고, 그동안 대지에는 난데없는 불이 일어나 모든 것을 태워버렸다.

무명에 빠져 죽음의 순간까지도 오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인간의 삶을 (아함경)에서는 이렇게 비유한다. 이 이야기에서 코끼리는 무상(無常), 우

림과 부처님의 화신으로 우리에게 알려졌다. 경전에 자주 등장하는데 특히 흰코끼리를 신성시 하며, 때로는 부처님께 헌화하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불교의 일곱가지 신성한 보물중의 하나인데 등에 부처님의 보시 그릇을 실은 흰코끼리는 석가모니 부처님의 화신이다. 코끼리는 또 석가모니 부처님의 오른쪽 옆시 보살인 보현보살의 탈 것이기도 하다. 덕이 높고 학식이 있는 고승을 용상(龍象)이라고 하고 큰 불사를 치를 때 스님들의 소임을 적는 것을 용상방(龍象榜)이라고 한다.

사자

네 발 짐승 가운데 우두머리인 사자가 독보적이고 겁이 없으며, 일체를 항복시키는 것과 같이 부처님도 일체를 항복시킨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



◇흰 코끼리를 탄 호법보살이 마야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모습을 표현한 팔상도중 도솔대 의상(부분). 통도사 영신전, 1775년.

코끼리 부처님 화신으로 여겨 신성시 소 '마음' 찾기 심우도 유명 사자 일체 항복시키는 지혜 상징

물은 생사(生死), 독사는 죽음, 덩굴은 생명줄. 흰귀와 검은귀는 낮과 밤, 벌집은 엇비슷한 생각, 꿀은 오욕, 불은 방등을 나타낸다.

이처럼 경전속에는 수많은 동물들이 비유로써 등장한다. 전생의 부처님 모습을 그려내기도 하고, 때로는 우매한 우리 중생에 비유해 의인과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마야부인의 꿈속에 도솔천에서 흰코끼리를 탄 호법보살이 화려히 나타나 부인의 오른쪽 옆구리로 들어가는 팔상도에서 보듯 코끼리는 불교를 대표하는 동물이다.

또 (본생경) 등 경전에서는 부처님의 전생을 갖가지 동물의 모습을 통해 만날 수 있다. 코뿔소, 호랑이, 배구기, 영무새, 공작새, 닭, 비둘기, 도마뱀, 소, 해오라기, 자고새, 메추리, 악어 등.

코끼리

코끼리는 설화나 도상에서 정신적인

어 불상의 대좌(臺座)에 사자가 등장, 사자좌라 한다. 사자좌(獅子座)라는 명칭은 또한 그 자리에 앉아 사자후(獅子吼)의 실법을 한에서 기인한다. 경전에서 사자를 자리에 비유함은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항상 높은 곳에 있기 때문이다.

거북

장생과 길상을 상징하여 만년을 사는 고령동물로 알려졌기에 용, 봉황, 기린과 함께 사량(四靈)으로 불렸다. (삼국유사)에 사미승 모정이 황룡사 우물가 거북에게서 구슬을 얻어 중에 받은 이야기와 진표유사가 명주 바닷가에서 들어선 거북의 등을 밟고 용궁에 가서 계(戒)를 얻었다고 하는 이야기 등은 유명하다. 고승들의 비식을 피는 발심조각으로 많이 장식돼 왔다.

소

소를 찾아 나서 소를 발견해 집으로 돌아오는 과정을 10가지로 나누어 설

명한 '심우도'는 자신의 본성을 발견하고 깨달음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나타낸 그림이다. 인간이 본래 가지고 있는 불성을 사람과 가장 친근하고 근기가 굳센 동물인 소를 인용했다.

보조국사 지눌은 자신의 호를 소를 기르는 이, 목우자(牧牛子)라 했는데 '할마음을 돌보아 기르는 사람'이라는 뜻이다.

호랑이

굴주린 호랑이를 위해 몸을 던져 보시한 부처님의 전생이야기, 회방사 오누이담에 얽힌 이야기 등 호랑이는 용맹과 보은, 호법을 상징하는 동물로 여겨져 왔다. 불교가 재래신앙을 수용하면서 호법신장의 하나로 불교를 보호하는 역할을 담당하게 됐다. 산신각의 산신탱화에 단주나 (법화경)을 든 스님 옆에 다소곳이 앉아 있는 호랑이 모습을 찾아 볼 수 있다.

개

(해인사 유진(留眞) 팔만대장경 개간인유(開刊因由)의 이거인과 삼목대왕의 설화처럼 불교에서는 개가 조상의 환생이라는 속신으로 인해 개고기를 먹지 않게 되었다고 전한다. 신라에서부터 당나라까지 경성을 따라다니며 김교각 스님곁에서 수행을 도왔던 흰 사슴개는 지금도 구화산을 지키는 영물로 여겨지고 있다.



◇문수보살은 때때로 사자를 타고 현신한다. 1997년 2월 영암 도감사에서 출토된 청동문수동자상.

사슴

성현의 용재총화를 보면, 고려 환암국사와 사슴에 얽힌 설화가 나온다. 환암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었는데 13살 때 아버지를 따라 사냥을 갔다가 달아나던 어머니가 새끼 사슴을 가다리는 모습을 보고 크게 깨쳐 스님이 되어 국사까지 되었다는 것, 이처럼 사슴은 진리의 안내자로 상징되며 부처님의 전생설화에 등장한다.

닭

지리산 일대에서 정진하던 서산대사가 큰 의문에 부닥쳐 고뇌에 빠져 있을 때 낮닭이 화를 치며 크게 우는 소리를 듣고, 순간 일체의 분별이 없어져 나가고 주관과 객관의 경계도 없어져 외부 현상이 그대로 마음자재를 깨달을 수 있었다. 그래서 닭 울음소리는 오도의 기연(機緣)이 되었다.

말

대장관세음보살이 육도를 순회하며 중생을 교화할 때 상관을, 천수관음, 마두관음, 삼일관음, 여의륜관음으로 현신한다. 그 중에서 마두관음(馬頭觀音)은 축생도(畜生道)를 교화할 때의 현신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다. 이은자 기자 (eje@buddhapa.com)



◇연곡사 동부도(국보 제53호) 상륜부를 장식하고 있는 가름빈가.

상상속의 동물 가름빈가 아름다운 목소리 '극락조' 해 태 정법과 불제자의 수호신

가름빈가

가장 널리 알려진 상상의 새로 경토민나라 등에 사람의 두상과 새의 몸, 용 꼬리가 달린 모습으로 그려진다. 그 자세와 소리가 아름답고 묘하여 모음조, 호음조, 미음조라고도 한다. 극락에 깃들인다 하여 극락조라 부르기도 하며, 부도의 상륜부에 주로 조각돼 죽은 자의 극락왕생을 빌었다.

금시조

가루라(迦樓羅)라고도 한다. 고대 인도 사람들은 새의 과수로서 큰 새의 존재를 생각하고, 대승경전의 팔부귀중(八部鬼衆)의 하나로 자주 인용됐다. 밀교에서는 대법천 대자재천 등이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금시조로 화현한 것이라 전하기도 하고, 문수보살의 화신이라고도 한다.

봉황

고대 중국에서 신성시했던 상상의 새로 수컷을 봉, 암컷을 황이라고 한다. 봉황은 알수가 서로 사이좋은 새로 알려져, 도령에 봉황이 나타나는 것은 불국토가 이룩돼 부처님의 공덕이 온 세상에 미쳐서 천하가 평화롭고 중생들이 행복하게 살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대 목조전각에서 용마부의 양끝에 놓여 부처의 장식기와 치미(鸚尾)는 봉황을 본따서 만든 것이다.

해태(해치)

파시현정의 수호신으로 불법을 따르는 사람들을 수호하고, 불법을 비방하거나 따르지 않는 사람들을 동정하기 위해 사찰에 장식된다. 사찰의 명부전에는 죽은 이의 영혼을 심판하는 탕화가 그려져 있는데 10대 법왕이 해태관을 쓰고, 죽은 이의 영혼을 정법으로 심판한다.

현무

북쪽 방위에 있으면서 수기(水氣)를 맡는 태음신인 현무는 거북과 뱀이 합쳐진 모습으로 생각되어 왔다. 흔히 옛날 무덤 속에서 발견되나,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는 뜻에서 절 벽화에서도 발견된다.

성·동·석·재·불·사·공·예·사

"오랜 전통과 최고의 작품으로 모시는 것이 불교석재조각의 대가 성동석재불사공예사의 한결같은 마음입니다."



귀의 삼보하옵고, 20여년 동안 쌓은 섬세한 조각기술과 장인정신을 바탕으로 불교문화발전에 일익을 담당하고자 합니다. 최고의 작품조성으로 보답하고자 하오니 고승대덕 큰스님 및 불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바랍니다.

대표 김성수 합장

성동석재불사공예사
경기도 포천군 영종면 성동 5리 822-2

전화 : 0357)31-8736 팩스 : 0357)31-5549
호출 : 012)321-6044 핸드폰 : 011)284-5101

